

全南地域 佛敎와 城郭遺蹟의 最近 調査成果*

崔仁善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전남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백제성곽 |
| II. 불교유적 | 1. 順天 劍丹山城 |
| 1. 月出山 師子寺 木塔址 | 2. 麗水 鼓樂山城 |
| 2. 順天 金屯寺 建物址 | IV. 불교유적의 조사성과 |
| 3. 光陽 玉龍寺 浮屠殿址 | V. 전남동부지역 백제산성의 특징 |
| | VI. 맺음말 |

< 요약 >

이 글은 전남지역에서 최근에 발굴조사된 역사고고학 분야 가운데 불교와 성곽유적을 중심으로 중요한 유적에 대하여 살펴 본 것이다.

불교유적의 성과로는 시기적으로 볼 때 먼저 금둔사지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가 전남지역에서 실시된 최초의 통일신라시대 불교 건물지 조사이기 때문이다. 옥룡사의 부도전 조사는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었던 승려의 장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수확이었다. 부도 아래에서 석곽과 그 안에 석관이 안치되어 있어서 승려들의 장법이 화장이었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잘못된 것이며, 대부분의 승려들이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법인 2차장(세골장)을 따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자사의 목탑지는 고려시대의 유구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뜻밖에도 백제후기에 축성된 것으로 밝혀진 순천 검단산성과 여수 고락산성 등이 조사되어 백제석성 연구에 아주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산성들의 특징은 산성의 형식이 테피식으로 아주 소형에 속하고, 내외의 벽을 돌로 쌓은 협축식의 석성이며 성벽의 너비가 거의 500cm로 일정하고, 평기와의 내면에 마포흔 대신에 승문(거친 섯문양)이 시문된 기와들이 반드시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I. 머리말

해방 후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1960년에 이루어진 영암 내동리 옹관묘 유적이며, 그 후에는 주로 강진의 도요지와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불교

* 한국대학 박물관협회 제45회 추계학술발표회(2001. 10. 19) 발표문을 수정하여 기고한 논문임.

** 순천대학교 사학과

유적 발굴조사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늦게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조사가 1980년에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실시하였던 광주 원효사 발굴조사였다.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청동불상 6구, 소조불두 4구 등 여러 가지 유물들이 출토되자 사찰측에서 광주박물관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건물지 1동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조성된 금속과 소조유물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어 원효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¹⁾ 그 다음으로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984년부터 4차에 걸쳐 일명 천불천탑이 있었다고 하는 화순 운주사를 조사하였다. 여러 동의 건물지와 탑지, 탑구, 불상의 대좌 등 유구가 다수 조사되었고, 통일신라시대의 금동보살입상을 비롯해서 많은 유물들도 출토되었다.²⁾

1980년대까지 앞에서 열거한 2건의 寺址 조사만 있었으며, 본격적인 사지조사는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94년부터 光陽 玉龍寺址 조사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長興 寶林寺, 靈巖 師子寺址, 順天 金屯寺址 등을 발굴조사하였고,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는 3차에 걸쳐 영암 도갑사 발굴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담양 읍내리사지, 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 화순 공림사지, 전남문화재연구원에서 나주 운흥사지 등을 조사하였다.

성곽조사는 1984년에 조선시대에 쌓은 고흥 발포진성 조사가 효시이며,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무진고성(89~90년 조사, 전남대), 나주 회진토성(95년, 전남대), 완도 청해진성(90년~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있다.³⁾ 그리고 최근에 뜻밖에도 백제후기에 초축된 것으로 밝혀진 순천 검단산성과 여수 고락산성 등이 조사되어 백제석성 연구에 아주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처럼 많지는 않지만 전남지방에서 불교와 성곽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이 유적들 가운데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성과가 뚜렷한 유적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徐聲勳 外, 1983. 『元曉寺』(國立光州博物館·元曉寺)

2) 4차의 발굴조사보고서는 모두 출간되었으며, 조사 후에 운주사에 대한 종합학술조사서도 발간되어 운주사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全南大學校博物館, 1991. 『雲住寺綜合學術調查』)

3) 高용규, 1999. [全南地方 城郭研究의 現況과 課題], 『湖南考古學報』(湖南考古學會) 10

II. 불교유적

1. 月出山 師子寺 木塔址(圖面 1, 사진 1~2)

이 유적은 영암읍 개신리 월출산 사자봉의 북쪽 골짜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天皇寺라 하여 조그마한 법당 1동과 요사 1동만 있다. 이들은 6·25 전쟁 후에 건립된 것이며, 이 절의 창건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연혁을 전해주는 기록은 현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천황사의 정비·복원 자료를 얻기 위하여 1995년 12월 4일부터 1개월 동안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목탑지와 법당지를 1차 발굴조사하였고, 2000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승방지 등 건물지 2동을 2차 발굴조사하였다.

그리고 목탑지에서 '師子寺' 銘의 평기와편이 출토되어 寺名이 현재 부르고 있는 天皇寺가 아니라 師子寺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전기에 활동하였던 大覺國師 義天이 11세기 후반기에 사자사에 와서 詩 한 수를 짓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⁴⁾

(1) 목탑지 조사전 현황

목탑지와 그 주변은 대나무와 참나무·자귀나무·동백나무 등이 우거져 있었다. 나무들을 제거하고 보니 목탑지의 전면 기단석이 노출되었고 탑지 중심부에는 민묘의 봉분이 뚜렷이 노출되었다. 이 묘는 조사 과정에서 假墓였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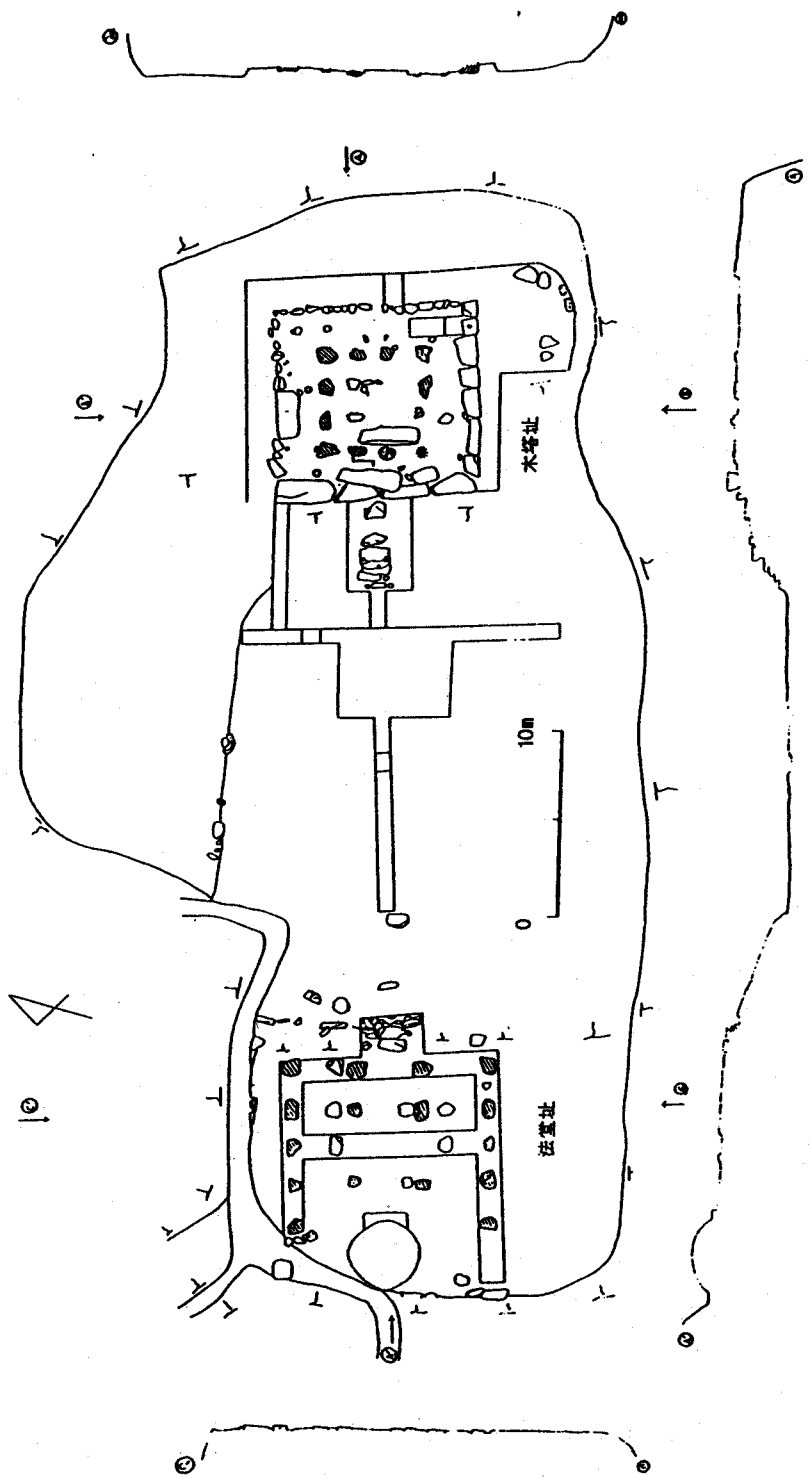
목탑지는 월출산의 사자봉에서 북으로 흘러내린 일지맥의 말단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여 남, 동, 북면은 아주 가파르며 계단석이 있는 서쪽만 평평한 대지가 있고 그 앞에 건물지의 초석들이 약간 노출되어 있었다.

(2) 木塔址 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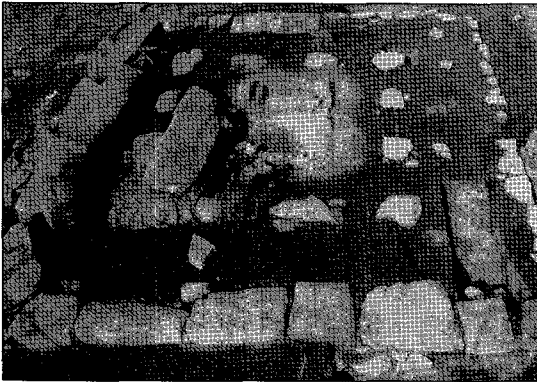
표토를 제거하자 塔址의 윤곽이 노출되었다. 기단은 한 변의 길이가 10.5~10.8m로 거의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前面인 서쪽과 남쪽은 장대석과 할석들로 단면 장방형으로 쌓아 만들었다.

礎石은 정면 4개와 측면 4개가 아주 정연하게 노출되었는데 남서쪽 모서리 1개만 유실되고 없다. 각 초석간의 거리 즉 주칸(柱間)은 약 170cm이며, 양 모서리 초석간의 거리는 약 5.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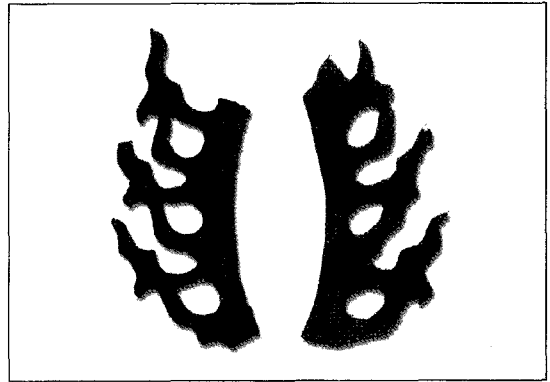
4) 동국역경원, 1994 『大覺國師文集 外』, 이 문집의 제17권에 '寶月山 師子寺'란 시가 한 수 있으나 내용은 결락되어 있어서 알 수 없다.



圖面 1. 師子寺 木塔址及 法堂址 平·斷面圖



(사진 1) 영암 사자사 목탑지 전경



(사진 2) 목탑의 청동 수연편

로 역시 정사각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목탑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이 된다. 그리고 동북쪽 모서리 초석과 기단 모서리 사이에 활주석의 초석으로 보이는 초석이 놓여 있

다. 초석은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으로 柱座는 없다. 동북쪽 모서리 부분의 초석 주변을 조사한 결과 초석은 잔 할석들로 적심을 이루고 그 위에 초석을 올려놓았다.

목탑의 중심부를 이룬 心礎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假墓가 있었다. 가묘를 쓸 때 옮겨버렸는지 심초석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는 잔 할석들이 일부 깔려 있어 심초석과 사리장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단석 북쪽 부분에서 방형의 사리공이 있는 석재가 있었는데 이 석재는 바로 심초석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있던 할석들을 제거하고 토층을 조사한 결과 판축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다.

목탑지의 서쪽 중앙부에만 계단이 있다. 이처럼 한 쪽에만 계단이 설치된 것은 이곳의 지형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사자봉에서 뺀어내린 구릉의 말단 정상부에 목탑이 위치하므로 나머지 3면 쪽은 가파른 경사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서쪽 기단에서 28.2m 떨어진 위치에 法堂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다.

(3) 목탑의 조성시기와 폐탑시기

현 목탑지 유구의 창건은 출토유물로 볼 때 고려 전기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남쪽 기단석 밑에 와편들이 깔려 있는데 이들 와편은 최하층의 와편들로 등문양이 선조문, 격자문, 무문 등이 중심을 이룬 통일신라시대 와편들이다. 그러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목탑 유구는 기존에 있었던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문화층 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탑지와 주변에서 20여 편의 청자들이 출토되었는데 확실한 편년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표 60cm 아래에서 출토

된 청자 해무리굽편이다. 그리고 목탑의 남쪽은 1m 정도의 와편 퇴적층이 있는데 층위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들 와편들은 수지문이 시문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고려시대 것들 뿐이며 표토층이나 아래층의 와편들이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유물 출토상으로 볼 때 현 목탑의 유구는 고려전기 경에 조성된 것을 추정된다.

폐탑시기를 알려 주는 자료는 조선시대의 와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 어느 시기에 폐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많은 양의 기와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면 폐탑의 보다 근접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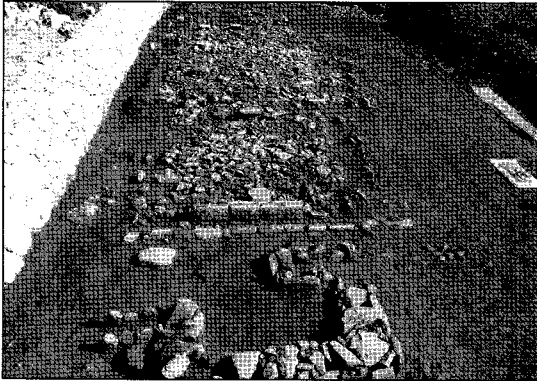
목탑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와편, 청자편, 철못, 청동화염문편 등이다. 그 가운데서 기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기와류는 평기와편들이고 암막새와 수막새도 조금 있으며, 특수 기와로 치미편, 부고편 등이 있다. 그리고 銘文이 시문된 銘文瓦가 있는데 그 내용은 “師子寺, 月日 ---豐王(?)---, 庚戌(?)年三月二十四日, 丁卯上只寺成, 北所中, 北一昕, 大匠?明, 官, 勝木造, 大佛頂他羅尼” 등이다.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도 상당수 되나 대부분 고려시대의 기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기류는 청자편들만 출토되었다. 해무리굽편이 2점이며 나머지는 아주 작은 편들로 20여점 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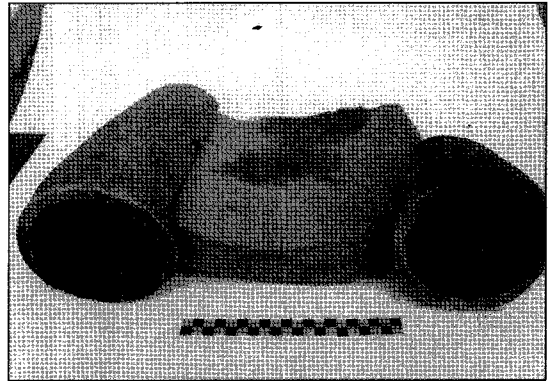
그리고 특이하게 靑銅火焰文수연편이 1점 출토되었다. 이 편은 목탑지의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토하였으며,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현 천황사 주지가 몇 년 전에 목탑지에서 수습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편은 위·아래가 끊어져서 불상의 光背로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크기나 형식으로 보아 광배보다는 목탑 상륜부의 수연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日本 奈良에 있는 藥師寺 木塔의 상륜부 수연이 거의 이 청동화염문편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참고가 된다. 이 편은 현재 길이 23.5cm, 너비 10.2cm, 두께 0.4cm이다.

2. 順天 金菴寺 建物址(사진 3~4)

금둔사는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金錢山의 서쪽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유명한 낙안읍성이 바로 밑에 있다. 금둔사에 관한 문헌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 40, 樂安 佛宇條와 『東國輿地志』 樂安郡 寺刹條에 ‘金菴寺는 金錢山에 있다’ 라는 아주 간략한 기사가 있어 17세기 후반까



(사진 3) 금둔사 조사 후 전경



(사진 4) 금둔사 출토 암·수막새 조합상

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梵字攷』 낙안 사찰조와 『湖南邑誌』 제8 낙안 사찰조에 모두 廢刹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 폐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80년대 중반 금둔사가 복원되기까지 폐사지로 있었는데 별칭의 寺名으로 松林寺 혹은 동림사로도 구전되어 오고 있었다.

이처럼 금둔사는 문헌기록의 측면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통일신라 하대 즉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三層石塔(보물 945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 石佛碑像(보물 946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폐사지로 있던 금둔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창불사를 일으켜 현재 범당, 요사채, 종각, 선원, 산신각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1998년에 현재의 요사채 뒷편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절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통일신라시대 기와가 출토되어 유적의 중요성이 제기되자 99년 1월에 1개월 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 建物址 遺構

동-서 39.5m, 남-북 16.5m 크기의 장방형 대지(약 200평)를 조사하였는데 유구는 동-서 일직 선상에 모두 4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물지 동쪽에서 축대가 2중으로 확인되었

5) 崔仁善, 1996. [順天 金屯寺址 石佛碑像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韓國文化史學會) 5

고, 북쪽에서 역시 축대가 확인되었다. 동쪽과 북쪽의 축대는 이번에 그 일부만 조사하였으므로 앞으로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1) 제1 건물지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서쪽에 남-북 2매의 초석을 제외하고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기단도 일부만 남아 있다. 건물의 규모는 현재 정면(동-서) 2칸(주칸거리 290cm 내외), 측면(남-북) 2칸(주칸거리 180cm)이다. 초석은 막돌 초석으로 1매는 70×60×28cm로 장방형이고, 1매는 74×70×18cm로 원형에 가깝다. 초석 적심석은 현재 4개소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중앙에는 적심석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적심석은 지름 130cm 크기에 원형이다.

기단 역시 대부분 훼손되고 일부만 남아 있으나 그 규모는 확인할 수 있는데 정면 780cm 내외, 측면 707cm 내외로 거의 방형에 가깝다. 건물지 바닥 전면에 浮石들이 깔려있다. 건물지 동쪽으로 2층의 축대가 노출되고 있는데 현재 5단 정도 남아 있고, 높이는 190cm이다. 축대는 일부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쌓기도 하였고, 축대의 남쪽에서는 한꺼번에 폐기된 瓦積이 확인되었다. 또한 축대 밖으로 와적층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제1 건물지가 축대쪽 즉, 동쪽으로 무너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2 건물지

현재 남아 있는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동-서) 4칸(주칸거리 240cm 내외), 측면(남-북) 2칸(주칸거리 180cm 내외)이다. 초석은 현재 4매가 남아 있는데, 상면에 方形 柱座面이 있는 柱座礎石이다. 기단은 동·서쪽 기단이 남아 있어 정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길이는 11.8m이다. 건물지 내부 바닥 전면에 거친 할석들이 무질서하게 깔려 있어 특이하다.

(3) 제3 건물지

초석은 2매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유실되었으나 적심석이 남아 있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건물의 규모는 현재 정면(동-서) 2칸(주칸거리 290cm 내외), 측면(남-북) 2칸(주칸거리 190cm 내외)이다. 기단은 서쪽에서만 3매가 확인되었는데 70~96×30~36×32~36cm 크기의 다듬은 장방형 할석을 세워 놓았다. 다른 쪽의 기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건물지의 내부 바닥 전면에도 할석들이 무질서하게 깔려 있다.

(4) 제4 건물지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정면(남-북) 1칸(주칸거리 300cm 내외), 측면(동-서) 1칸(주칸거리 280cm 내외)이 확인되어, 제1·2·3 건물지와는 달리 동향의 건물로 판단된다.

건물지가 확인되기 전 즉, 제4 건물지의 상부에는 와적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토층이 있었

다. 이 와적층을 제거하면서 건물지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현재 초석은 3개가 확인되고 있는데, 원형에 가까운 막돌 초석이다. 건물의 내부에서 구들이 확인되었는데 구들의 전체 길이는 950cm이고, 전체적으로 뚜껑돌이 잘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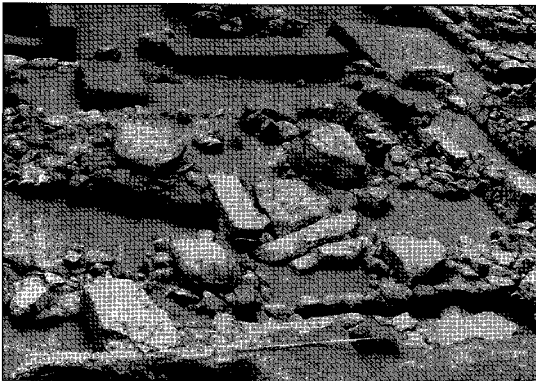
2) 出土遺物

많은 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막새류는 암막새 2종(변형 당초문 암막새, 변형 화문 암막새)과 숫막새 4종(단관 연화문 숫막새, 복관 연화문 숫막새 등)이며, ‘官’자명 명문와도 있고, 특수와로 모서리와, 착고, 사다리꼴 판기와, 적새, 귀면와, 이형기와 등이 있다. 평기와의 등문양은 선문, 격자문, 무문 등으로 삼국시대 기와의 배면 타날문양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 밖에 철도자, 철못 등의 철기류가 있고, 해무리굽 청자편을 비롯한 청자편들이 출토되었다.

3.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道誥의 浮屠殿址(사진 5~7)

옥룡사는 전남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백운산의 일지맥인 백계산의 남단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고찰이다. 이 절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선승이자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진 先覺國師 道誥이 35년이나 주석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洞眞大師 慶甫와 志文 등이 그 법맥을 이어왔고 羅末麗初의 雙碑와 雙塔(부도)이 20세기 초반까지 전해져 그 이름이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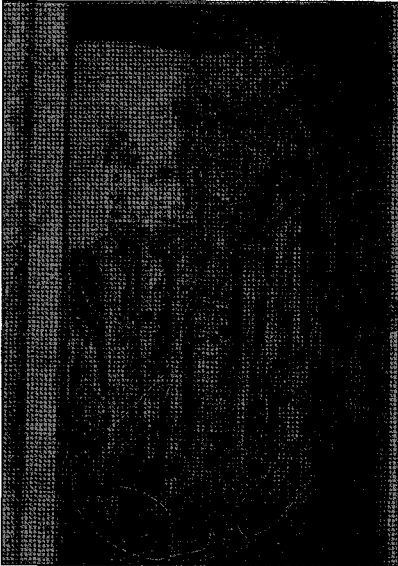


(사진 5) 옥룡사 선각국사 도선 부도전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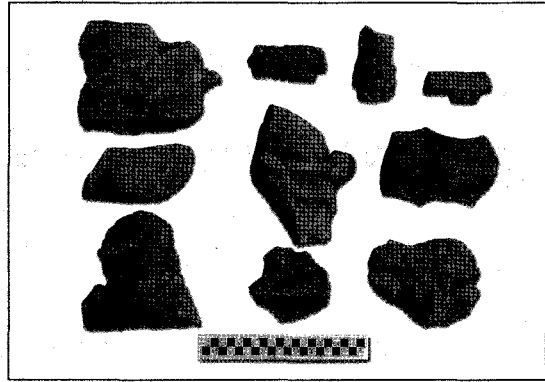


(사진 6) 선각국사 부도전지 내의 석곽과 석관

6) 崔仁善 外, 1995. 『光陽 玉龍寺址 I - 精密地表調査』(順天大學校 博物館·光陽郡)



(사진 7) 석판 안에 있는 인골



(사진 8) 탑비전지 출토 각종 조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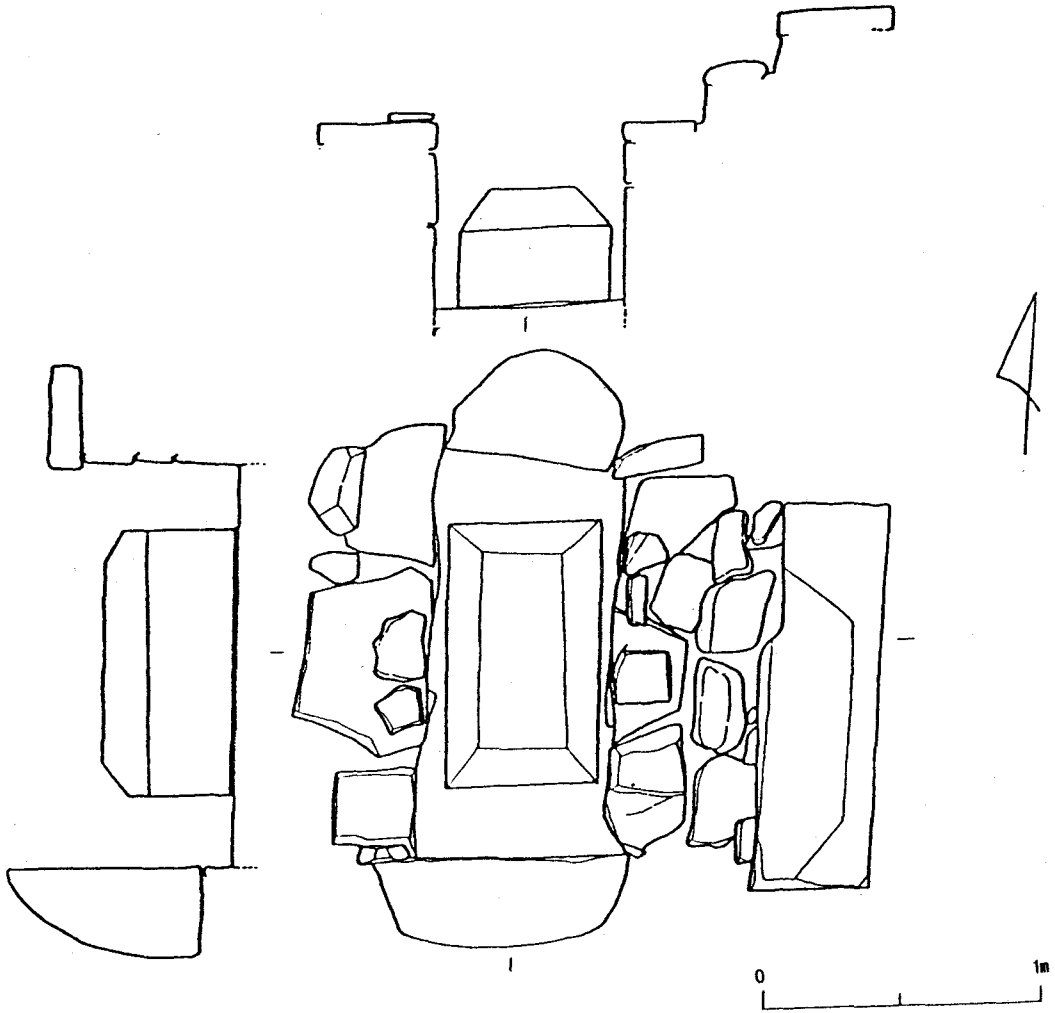
그러나 옥룡사에 대한 문헌이 소략하고 절은 조선후기에 이미 폐사되어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옥룡사지에 대한 종합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어 옥룡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다.⁶⁾ 지표조사 이후 옥룡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정비·복원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제1차 발굴 조사가 塔碑殿址(일명 비석거리)를 중심으로 1997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순천 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선각국사 도선의 부도전지와 통진대사 경보의 부도전지 등 2동의 건물지와 浮屠址가 발견되었으며, 경보의 碑片도 다수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석판과 그 안에서 인골이 출토되었던 도선의 부도전지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1) 浮屠殿址 遺構

이 부도전지는 일명 비석거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면적(약 200평)의 평탄한 대지에 있는데 옥룡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70m 가량 떨어져 있다.

도선의 부도전지는 塔碑殿址의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바로 위에는 청주한씨 민묘 1기가 있으며 건물지의 방향은 正南向이다. 부도전 중심부에 浮屠가 놓였던 지대석들 가운데 1매(가로 176cm, 세로 40cm, 높이 20cm)만 남아 있다. 이 지대석 상면에는 팔각당식 부도의 하대석이 놓였던 1조선(길이 70cm)이 조각되어 있는데 1변은 완전하나 2변은 부분만 남아 있다. 이러한 조각의 흔적은 이 부도의 형식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유행하였던 팔각당식이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남아 있는 지대석으로 볼 때 전체 지대석은 3~



圖面 2. 옥룡사 석각국사 부도전의석곽 및 석관 평·단면도

4매로 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도전 주변에서 상당량의 부도편들이 인위적으로 아주 작게 깨진 채로 출토되었다.

부도전은 현 遺構로 볼 때 3시기에 걸쳐서 조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창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잘 치석된 기단 면석만 남아 있을 뿐 건물지 유구는 중창하면서 모두 훼손되어 버렸다. 두 번째 중창은 고려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4개의 큰 초석을 이용한 건물지 최후의 유구인데 이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여기서 출토된 와편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정유재란 후의 어느 시기로 보인다. 정유재란 때에 옥룡사는 거의 화재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도전이 마지막으로 없어진 시기는 옥룡사가 全燒된 해인 1878년 경으로 보이는데 그 때에 도선비도 전복되고 있다.

(2) 石槨 遺構(圖面 2)

석관은 부도전지 중심부 부도가 놓였던 지대석 밑에서 나왔는데 석곽을 만들고 그 안에 석관을 안치하였다.

석곽 내부의 크기는 길이 130cm, 너비 70~60cm, 깊이 80~68cm이고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석관을 안치한 후 남단벽을 가장 늦게 막은 橫口式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석곽의 뚜껑은 3매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부도의 지대석 서쪽에 있는 큰 판석과 같은 평편석 1매가 덮고 있으며 그 북쪽에 동서로 놓여 있는 장대석 1매와 할석 1매가 더 있다. 바닥석은 약 20cm 정도 잘 다진 후 작은 할석들을 놓고 그 위에 크고 작은 판석들 6매를 깔았다.

이와 같은 소형석곽 안에 석관이 들어 있다. 이 석곽은 석관만을 넣기 위한 전용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석곽의 장벽쪽은 거의 틈이 없으며 양 단벽쪽은 한 사람씩 겨우 들어가서 석관의 뚜껑을 열어 볼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석곽은 내부에서 석관 이외에 아무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아 그 조성시기가 의문이었다. 석곽의 축조과정에서 와편들이나 토기편들이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곽을 해체하여 그 의문점을 풀어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동벽 입구의 벽석 크기가 너무 커서 人力으로는 할 수 없어 부분적인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석곽의 바닥석 밀부분과 벽석 바깥 부분에서 작은 와편 몇 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線紋 계통의 통일신라시기 것 뿐이었다. 그리고 석곽의 서북쪽 벽석 모서리 부분에 있는 적심석과 그 위에 있는 초석은 분명히 벽석 위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건물지 보다 석곽이 먼저 조성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석곽의 북동쪽에 있는 적심석과 남서쪽에

있는 적심석 역시 석곽의 토광선 일부에 걸쳐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곽은 고려전기의 건물지 보다 앞선 통일 신라시기에 축조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3) 石棺과 人骨

이 석관(전체 높이 45cm)은 1석으로 된 장방형 原石을 치석한 후 樞孔을 판 일반적인 석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석관의 외부 크기는 길이 95cm, 너비 54cm, 높이 30.5cm이며, 내부 크기는 길이 81cm, 너비 38.5cm, 깊이 19~21cm이다. 관의 두께가 7.2cm인데 비하여 저면의 두께가 10.5cm로 더 두껍다. 석관의 뚜껑 역시 1석이며, 길이와 너비는 석관과 같으며 높이는 16cm이다. 다만 두께가 16.5cm로 더 두꺼울 뿐이다. 뚜껑의 상면은 가로 71cm, 세로 30cm로 평탄하며, 4면에 낙수면(너비 15cm)이 경사져 있다. 관이나 뚜껑에는 아무런 조식도 없으며 또한 명문도 없다.

이 석관과 같은 형식이며 크기가 거의 비슷한 예가 지금까지 2곳에 알려져 있다. 하나는 강원도 원성의 興法寺 眞空大師 石棺(길이 94cm, 너비 48cm, 높이 48cm)⁷⁾이며, 또 하나는 강원도 영월의 興寧寺址 石棺(길이 95cm, 너비 51.6cm, 높이 39.5cm)⁸⁾이다.

진공대사 석관은 모서리 일부분이 파손되어 없으나 형식은 도선의 석관과 똑같다. 다만 석관외부의 하부에 넓은 가로띠를 두르고 그 아래의 장측면에 2구의 안상을, 단측면에 1구의 안상을 조식한 점이 다를 뿐이다. 이 석관은 진공대사탑이 만들어진 940년 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흥녕사지 석관 역시 같은 형식이지만 외부에 아무런 조식이 없다. 이 석관은 같은 사역에 있는 석실(내부 길이 150cm, 너비 190cm, 높이 160cm)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석실 내에 시상대 같은 시설이 전혀 보이지 않아 석실과 석관의 관계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석관은 내외측의 치석이 중후하고 그 형태도 둔중한 점으로 보아 석조 조각이 더욱 퇴화하기 시작한 고려 중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석관은 정식 학술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선의 석관처럼 부도 아래에서 출토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석관 내부에 어떤 것들이 들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7) 韓國文化財保護協會編, 1992, 『文化財大觀』(6권, 寶物 4, 石造物) 215. 이 석관은 부도와 함께 1931년 옮겨져 현재 경북궁 안 국립중앙박물관 현관 옆에 전시되어 있어 쉽게 볼 수 있다.

8) 鄭永鎬, 1974, 『獅子山 興寧寺址 石造浮屠』, 『新羅 石造浮屠 研究』(新興社) 237-243

이다. 그렇지만 석관의 형식이 같은 점으로 보아 거의 같은 기능을 하였던 유구로 보여진다. 즉 승려의 시신을 임시로 가매장하여 육탈 한 후에 뼈만 추려서 석관 안에 안치하였던 藏骨器 역할의 석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인골⁹⁾은 석관 안의 바닥 위에 놓여 있었으며 석관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 이처럼 물이 가득찬 것은 처음부터 물을 석관에 넣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석곽과 석관 사이에는 고운 흙이 차 있었는데 장마 등으로 이곳에 물이 가득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 결국 이처럼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1石으로 된 石棺은 배수구가 없는 石槽처럼 되어 있어 물이 한번 들어가면 빠질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석관이 지하에 존재하고, 석관이 흙으로 에워싸여 있어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없으며 설령 물이 증발되더라도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차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석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1,000년 이상 지나온 인골이 비교적 원형을 알아볼 수 있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인골은 火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길이 95cm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석관에 뼈만 간추려서 놓은 점으로 볼 때 시신을 육탈한 후 二次葬(洗骨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골의 출토상태는 頭蓋骨과 脊椎를 중심으로 좌우 體幹骨을 좌우로 구분하고, 두개골의 반대편에 骨盤을 두었다. 두개골은 하악골 부분만 선명할 뿐 대부분 흔적만 보이며, 골반 부분은 위에 흙이 약간 차 있었는데 이를 제거하고 보니 골반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上腕骨과 撓骨, 尺骨 등은 좌우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二次葬 하면서 上腕骨頭는 두개골 쪽을 향하나 骨頭가 외측을 향하고 있다. 大腿骨의 골두는 두개골 반대편에 있고 脛骨頭는 두개골 쪽을 향하나 전면과 후면이 바뀌어 있다. 상완골두 밑에는 手骨과 足骨의 일부가 있다. 齒는 현재 小白齒 1개만 확인되었으나 齒의 뿌리만 남아 있는 것이 3개 더 있었다.

인골에서 성별과 나이의 추정은 頭蓋骨, 齒, 骨盤 등이 잘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인골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요소들의 뼈가 대부분 삭아 없어졌다. 그렇지만 척추, 대퇴골, 상완골 등은 그래도 비교적 완형에 가깝게 잘 남아 있어 성별, 나이, 신장 등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인골의 경화처리를 하고 1차 감정을 하였던 충북대 박선주교수의 인골 감정소견은 다음과 같다.

9) 인골 감정은 최몽룡 서울대교수, 박선주 충북대교수, 정상수 영남대박물관 연구원 등이 하였다.

- ① 성별 : 인골은 남성으로 추론됨.
 - 위팔뼈 머리의 가로, 세로 지름의 지름(Humeral transverse / vertical diameter)이 남자의 범주에 속함.(Dweight, 1905; Sterwart, 1978)
 - 허벅지의 길이(Length of Femur)(荒, 소화 8년)가 조선 사람 어른 남자 평균치와 같은 범위.
 - 위팔뼈(Humerus), 정강뼈(Tibia), 허벅지뼈(Femur)에서 보이는 해부학적 특징은 남자에서 보이는 특징임.
- ② 나이 : 뼈대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른의 것이며, 아래턱의 몸체와 아래턱각은 이 인골의 나이가 60대 이후의 어른으로 가늠됨.
- ③ 신장 : 인골의 키는 165~172cm 정도로 계산되나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작을 것으로 가늠됨.(허벅지뼈와 정강뼈를 바탕으로 몽고로이드 산출방식으로 계산하였음. Tortter & Glesser, 1958)
- ④ 사망연대 : 뺏조각을 시료로 하여 아미노산 라세미 및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의뢰 중임.

위의 감정 결과 이 인골의 주인공은 60대 이후의 남성으로 추정되고 키는 169cm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안 감정을 통한 인골의 분석결과가 이와 같이 추정되지만 아직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실한 결과를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석곽과 석관이 통일 신라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 인골 역시 당시의 것으로 보아야 순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골의 주인공은 서기 947년에 80세로 입적한 洞進大師 慶甫가 아니라 서기 898년에 72세로 입적한 先覺國師 道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Ⅲ. 전남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백제성곽

1. 順天 劍丹山城(圖面 3, 사진 8~11)

검단산성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 48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이 산성이 있는 산은 주민들에 의하면 '안산' 혹은 '검단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圖上에는 '皮峰山'으로 나타나 있고 해발 138.4m의 낮은 산이다.

1996년부터 3차례의 조사에서 성벽을 비롯하여 지상건물지 4기, 수혈건물지 3기, 저장공 3곳, 대형우물 1곳, 팔각 집수정 1곳, 문지 3곳, 장방형 수혈유구 1곳, 기타 옹관 2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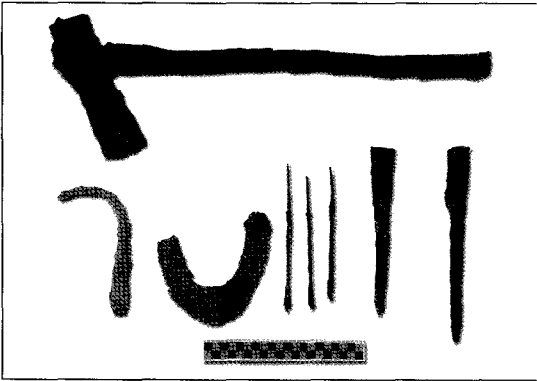
10) 崔仁善, 1997, 「光陽 玉龍寺 先覺國師 道誥의 浮屠殿址와 石棺」, 『文化史學』(韓國文化史學會) 6·7號



(사진 9) 검단산성 외벽 전경



(사진 10) 검단산성의 대형 우물 내부



(사진 11) 검단산성 출토 철기류

검단산성은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고 석성으로 축조된 점이 학술적으로 인정되어 1999년 12월 29일에 국가 사적 제418호로 지정되었다.

(1) 城壁

검단산성은 해발 138.4m의 산정부를 둘러싼 테피식 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430m이다. 이 가운데 경사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고 250m 구간의 외벽과 55m 구간의 내벽을 노출시켜 조사하였다.

성벽은 내·외벽을 모두 쌓아 올린 협축식으로, 경사가 급한 지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돌로 쌓고 있다. 또 자연 암반이나 석비레층을 'ㄴ' 자형으로 판 후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는데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1~2단, 경사가 심한 부분은 4~5단의 벽석 높이까지 생토면을 파고 성벽을 쌓아 올렸다. 벽석은 20~8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고른 면을 외면으로 향하게 하여 수평으로 맞추어 쌓았다. 이 때 성벽 통과선의 경사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3~4단 정도의 단을 두어 안정감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면이 고르지 않은 면은 잔돌로 썰기를 박았으며, 성돌 크기는 상·하의 석재에 차이가 없다. 성벽의 내·외벽 사이는 생토면 위에 30~50cm 정도의 흙을 채우고 그 위에 잡석을 채웠다. 내·외벽 사이의 너비는 500~510cm로 거의 일정하나 남쪽 급경사 부분의 너비는 550cm 내외로 다른 부분에 비해 약간 넓다.

외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갈색 점토와 기와, 잡석을 이용하여 다짐하였는데 그 너비는 200cm 내외이다. 남아 있는 외벽의 높이는 50~270cm이다. 성벽을 완성한 후 내벽쪽은 되채우기를 하였는데 그 높이는 경사가 급한 서쪽부분은 170cm 내외, 경사가 완만한 동쪽부분은 50~100cm 내외이다. 남아 있는 내벽의 높이는 80~270cm이다. 한편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 지구에서는 내벽의 바닥 170cm 높이에서 水口 4개가 조사되었다.

(2) 門址

문지는 남·서·북쪽 3군데서 확인되었다. 남문지와 서문지는 거의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문지는 현재도 대법마을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문지는 능선의 정상부에서 계곡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면에서 차이가 있다.

(3) 建物址

1) 지상건물지

모두 4동이 조사되었지만 대형 우물 동쪽에 위치한 건물지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는 초석이 발견되었고, 나머지 3동은 유구의 훼손이 심한 편이다.

① 건물지 1

이 건물지는 '가' 지구(남문지를 포함한 산성의 정상부) 남서피트 즉 산성의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현재는 4각만 남아 있으나 그 형태로 보아 12각 건물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여 모두 3열의 초석이 원형으로 놓여 있는데, 260cm 지점에 1열(주칸거리 150cm 내외), 400cm 지점에 2열(주칸거리 200cm 내외), 540cm 지점에 3열(주칸거리 280cm 내외)의 초석이 놓여 있다. 초석의 크기는 80~90×90~100×15~20cm이다. 3열의 초석 바깥쪽으로는 할석과 석비레층인 생토면을 이용하여 기단을 형성하였다. 이 건물지에서 많은 양의 평기와와 이형기와가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12각 건물지의 예가 하남시 이성산성¹¹⁾에 있다. 이 유구는 12개의 초석이 원을 그리며 3겹으로 놓여 있어 검단산성의 유구와 비슷하며 건물의 기능은 장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지가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7세기 전후 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검단산성 건물지와는 시기 차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공주 공산성¹²⁾에서도 12각 건물지 2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건물지들도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② 건물지 4

대형 우물의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우물에서 동쪽으로 약 6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높이 120~150cm, 너비 300cm, 길이 13.2m의 축대가 있고 축대 동쪽으로 건물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는 9개의 초석만 확인되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초석의 배열상태로 보아 정면(남-북) 3칸, 측면(동-서) 2칸의 건물로 추정된다. 주칸거리는 정면 280cm 내외, 측면 260cm 내외이고 축대에서 200c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초석의 크기는 62~88×58~78×8~16cm이다.

출토유물은 와편과 토기편 다수, 철촉, 석환, 솥돌 등이 있다.

2) 수혈 건물지

정상부 평탄면에서 초석을 갖추지 않은 수혈 건물지 4동이 확인되었다.

수혈 건물지는 석비레층을 ‘ㄴ’자형으로 파고 축조하여 낮은 쪽이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크기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현재 남아 있는 크기는 길이 390~560cm, 너비 190~260cm, 깊이 30~60cm이며 정상부를 중심으로 약간 경사진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수혈 내부에는 40~60×40~45cm 크기의 주공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벽면을 따라 얇은 溝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상식 건물지에 해당하는 1·2건물지의 경우 수혈 건물지 일부를 파괴하거나 다진 후 축조되어 있어 수혈 건물지가 지상식 건물지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와편, 적갈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등이 있다.

지금까지 백제시대의 수혈 건물지는 부여 扶蘇山城¹³⁾, 공주 公山城¹⁴⁾, 공주 艇止山유적¹⁵⁾ 등에서 조사된 예가 있는데 대부분 5~6세기대에 해당하는 유구로 추정되고 있다. 검단산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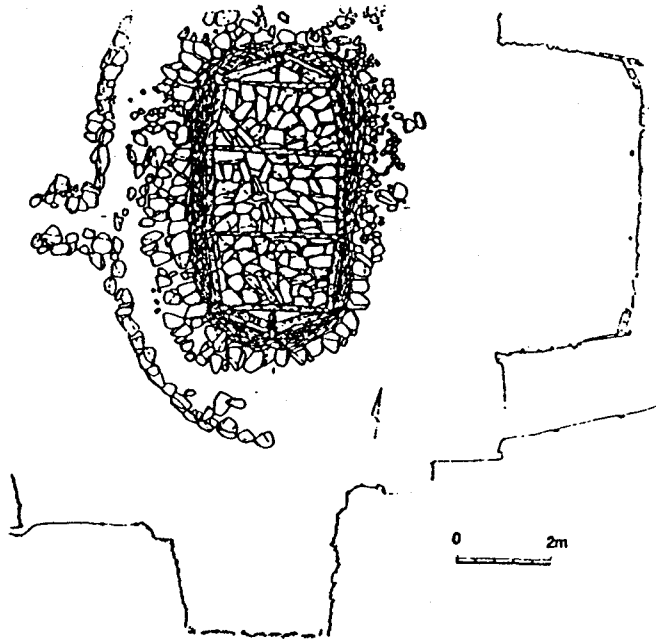
11) 金秉模·沈光注, 1991. 『二聖山城(三次發掘調査報告書)』(漢陽大學校·京畿道)

12) 安承周·李南奭, 1992. 『公山城建物址』(公州大學校博物館·忠清南道)

13)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 -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扶蘇山城 - 發掘調査 中間報告 II』.

14) 安承周·李南奭, 1992. 『앞 책』(주 12).

15) 國立公州博物館, 1999. 『艇止山』(국립공주박물관·(주)현대건설)



圖面 4-1. 검단산성 대형우물 평·단면도

도 수혈 건물지 일부를 훼손하거나 다진 후에 지상식 건물이 형성되어 있어 수혈건물지가 지상식 건물지보다 이른 시기의 유구로 밝혀졌다.

(4) 대형 우물(圖面 4-1)

성의 서쪽인 '나' 지구에서 확인되었다. 이곳은 성 가운데 가장 낮은 지역으로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우천시 물이 모이는 곳에 해당한다.

규모는 길이 810~890cm, 너비 400~480cm, 깊이 350~500cm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역사다리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벽은 다양한 크기의 석재를 주로 가로방향으로 쌓아 올렸는데, 수평을 이루지 않고 면도 고르지 않아 거친 느낌이다. 동쪽에 비해 서쪽 벽의 높이가 낮으며, 성벽쪽으로 出水口가 마련되어 있다. 서쪽면에는 벽석에서 100cm의 거리를 두고 너비 80cm, 깊이 40cm의 석열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우천시 물을 모으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 또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석 외곽으로 너비 130~140cm, 깊이 550~600cm 정도까지 점질이 강한 황색점토와 회색점토로 다져 놓았다. 내벽의 바닥면에는 높이 170cm 내외, 너비 25cm 내외, 두께 10cm 내외의 角材 10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다. 또 각재의 아래쪽에는 구멍을 뚫어 각재와 각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데 장축방향의 중앙은 角材, 단축

방향의 각재 사이는 원형의 목재이다.

바닥석을 들어내고 아래면을 조사하였는데, 바닥석에서부터 100cm 아래까지 회색의 점토가 깔려 있었다. 이러한 점토는 벽석의 외부에 채워진 점토와 동일한 것으로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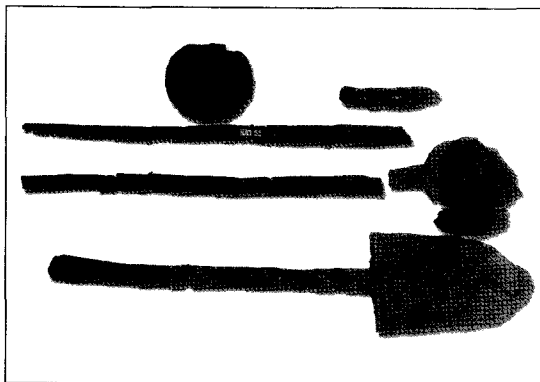
우물에서는 많은 양의 기와와 토기, 바가지형 목기·목제 삽(畚, 木杵)·원판형 목재·물동이형 목기 등의 목기류, 철모·철촉 등의 철기류, 石丸 등이 출토되었다.¹⁶⁾

2. 麗水 鼓樂山城(사진 12~13)

고락산성은 전남 여수시 문수동 산 35번지, 미평동 산 115번지, 둔덕동 산 176번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이 산성이 있는 산은 圖上에 鼓樂山으로 나타나 있으며 일명 괘락산(掛樂山)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락산성은 해발 335m의 고락산정과 고락산의 동쪽에 있는 해발 200.9m의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산성은 높은 봉우리에 堡壘(길이 100m)를, 상대적으로 낮은 봉우리에 본성(길이 354m)을 갖추고 있다. 본성이나 보루는 산정부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테피식 석성이다. 축성방법을 보면 본성과 보루 모두 협축식으로 축성하였는데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평면형태는 본성은 북서-남동방향의 장타원형, 보루는 원형이다.

본성의 정상부에서 보면 서쪽에 고락산 정상이 있고, 북쪽에 호랑산성, 북에서 동으로 약



(사진 12) 검단산성 출토 목기류



(사진 13) 고락산성 북문지

16) 崔仁善, 1999, 「順天 劍丹山城 研究(1)-발굴조사 내용과 축성법을 중심으로」, 『文化史學』(韓國文化史學會) 11·12·13호

45° 방향에 진례산 봉수대가 있으며, 남에서 동으로 약 30° 방향에 돌산 대미산정에 있는 달암산성이 보인다.

보루의 정상부에서 보면 북쪽 가까이에 호랑산성이, 북서쪽 멀리에 순천 김단산성과 왜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소라면을 비롯한 순천만이 있다. 북동쪽으로는 천성산과 봉화산이, 바로 동쪽에는 척산산성이, 남동쪽으로는 오동도와 돌산대교를 비롯한 해안이 있다. 이처럼 보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본성에서 조망할 수 없는 해안지역과 해안지역에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육로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차 발굴조사는 성벽을 비롯하여 우물 1곳, 문지 1곳에 대한 조사를 1999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1) 城壁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서쪽부분의 외벽과 내벽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성벽은 내·외벽을 모두 쌓아 올린 협축식으로,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다. 벽석은 60×20cm 크기의 장방형 할석과 20×20cm 크기의 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고른 면을 외면으로 향하게 하여 수평으로 맞추어 쌓았다. 이 때 성벽 통과선의 경사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2~3단 정도의 단을 두어 안정감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면이 고르지 않은 면은 잔돌로 췌기를 박았으며, 성돌 크기는 상·하의 석재에 차이가 없다. 성벽의 내·외벽 사이 역시 돌로 채워 넣었다. 성벽은 부분에 따라 석재의 다듬어진 정도와 정교함의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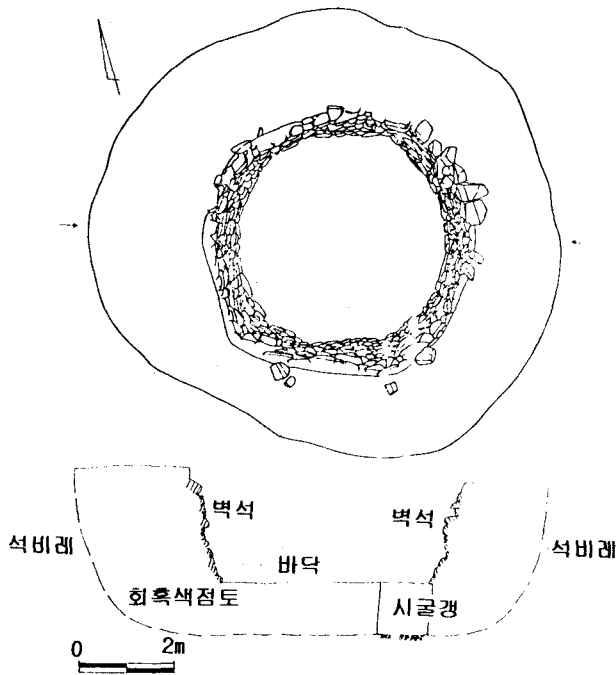
내·외벽 사이의 너비는 510~530cm로 거의 일정하며, 가장 잘 남아 있는 부분의 높이는 외벽 260cm, 내벽 210cm이다.

외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갈색점토를 이용하여 높이 100cm, 너비 100cm로 다짐하였는데, 가장 아래에는 10~20cm 두께로 흑갈색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벽을 축조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보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門址

문지는 남동쪽과 서쪽 2군데서 확인되었는데, 능선의 정상부에서 계곡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의 용이함보다는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는 서문지를 조사하였다. 문지는 폐쇄되어 있었는데 무질서하게 폐쇄하지 않고, 성벽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깥쪽을 쌓은 후 폐쇄하였다. 그런데 내부에는 황갈색점토와 암갈색점토를 이용하여 바닥에서부터 약 100~150cm 높이로 다진 후 그 위쪽에 석재를 쌓았



圖面 4-2. 고락산성 우물 평·단면도

다. 일부는 불을 피워 단단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남쪽 개구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한편 문지 안쪽에서 많은 양의 石丸이 수습되었다.

문지는 외벽에서 타원형을 이루며 안으로 꺾여 거의 직선에 가깝게 뻗어 내벽과는 직각으로 연결된다. 문의 너비는 안쪽 460cm, 바깥쪽 410cm이고 길이는 성의 너비보다 약간 긴 600cm이다. 계단과 같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開口部는 현재 13단이 남아 있는데 높이는 130~260cm이다.

(3) 우물(圖面 4-2)

서문지의 북동쪽으로 문지에 비해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하며 성벽과는 약 3~4m 정도 떨어져 있다.

석비레층을 지름 900cm 규모의 평면 원형으로 파고, 그 내부에 지름 500cm, 깊이 250cm의 규모로 석축을 쌓았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형태는 위쪽으로 가면서 바깥쪽으로 넓어지

는 역사다리꼴이다. 벽석은 20~60cm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추어 가로방향으로 쌓아 올렸다. 그런데 아래쪽의 벽석이 위쪽의 벽석에 비해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면도 고르지 않고 거칠어 특징적이다.

우물 벽석과 석비레층 사이 그리고 바닥에는 회흑색점토를 채워 넣어 물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내부에는 기와와 토기, 석재들이 혼합되어 퇴적되어 있었다.

(4) 출토유물

고락산성 출토유물 역시 기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막새류는 1점도 출토된 바가 없으며, 모두 평기와이다. 기와의 속성은 검단산성과 같으며, 백제기와에서 보이는 인각와가 여기서도 출토되었다. 토제품으로는 고배, 개배, 삼족토기편, 방추차, 기타 토기편이 다수이며, 철부와 石丸도 출토되었다.

IV. 불교유적의 조사성과

전남지방의 불교유적 발굴조사는 관련 학자와 당국의 무관심 탓인지 그렇게 활발한 편이 못된다. 1980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광주 원효사를 발굴조사하면서 불교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 화순 운주사와 공북사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진도 용장사지와 영암 도갑사, 순천대학교박물관에서 광양 옥룡사지, 영암 사자사지, 장흥 보림사, 순천 금둔사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 유적들의 초창시기는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 유구 조사는 조선시대층이나 고려시대층의 문화양상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유구의 중첩성도 있지만 대체로 예산이 부족하여 1차 혹은 2차 조사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하층의 유구까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행된 불교유적 발굴조사 가운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유적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먼저 이 지방에서 최초로 조사된 목탑지 유적을 들 수 있다. 월출산 사자봉 북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목탑이 있었던 사찰명은 와편과 문헌기록으로 '師子寺'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목탑 자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유구나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해도 그리 많지가 않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구려 목탑으로 平壤 淸岩里寺址(기단부 1변 길이 9.5m)와 大同 上五里寺址의 목탑지가 있는데 평면 형태가 모두 팔각이다. 백제 목탑은 익산 彌勒寺址 中院 목탑지, 부여 軍守里寺址 목탑지(1변 길이 약 13.8m, 정방형, 지표하 1.8m에서

1변 길이 1m 되는 방형주좌의 큰 心礎石 나옴). 부여 金剛寺址 목탑지(1변 길이 약 15m, 정방형, 1.8m 깊이에서 자연의 풍화암반을 깎아 내고 원형 초석 모양으로 心礎 만들), 부여 龍井里 寺址 木塔址(기단 1변 길이 18.5cm 추정) 등이 있다. 신라 목탑으로는 黃龍寺 9층목탑이 유명하며, 기록에 天柱寺와 靈廟寺에도 목탑이 있었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 목탑은 四天王寺 木塔(쌍탑), 望海寺 木塔(쌍탑), 祇林寺 木塔, 慶州 狼山 西麓의 木塔址 등이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 목탑은 萬福寺址 木塔址(정면, 측면 각 5칸, 柱間거리 180cm, 기단 길이 12.8~13.2m)와 興王寺址 木塔址(1067년 창건, 팔각의 쌍탑)가 조사되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목탑의 자료는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의 자료도 극히 부족한 편인데 이번에 아주 정연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사자사 목탑지는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 유구가 현재 월출산 일대 불교유적 가운데 가장 연대가 앞선다는 점도 있다. 월출산에 남아 있는 불상이나 석탑들이 거의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9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 와편들은 월출산 일대의 본격적인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지하듯이 8세기는 통일신라 불교문화가 절정을 이룬 시기이며, 그 이후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이 지방의 명산인 월출산에도 불교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사자사지의 유적은 잘 말해주고 있다.¹⁷⁾

그리고 이 목탑의 층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목탑의 나라인 일본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일본의 경우 목탑의 1변 길이(側柱礎간의 길이)를 알았을 때 탑의 층수와 높이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 즉 한변의 길이가 9m 이상일 때 배율이 5배이고 층수는 7층이며, 6m 이하일 경우 배율이 4배이며 3층이고, 그 중간 것은 배율이 4~5배이고 5층이라는 것이다.¹⁸⁾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에도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자사 목탑 1변의 길이가 5.2m이므로 일본의 예에 의하면 이 목탑은 3층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금둔사 건물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둔사 건물지 발굴조사는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건물지 조사

17) 崔仁善, 1996, 「月出山の 佛敎文化 - 佛像과 石塔을 중심으로」, 『영암 月出山の 祭祀遺蹟』(木浦大學校博物館·靈巖郡)

18) 岩井隆次, 1982, 『日本の木造塔跡-心礎集成とその分析-』(東京:雄山閣)

로서 앞으로 있을 다른 유적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유적의 범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소가 넘는 遺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발굴조사된 유적은 皇龍寺, 望德寺, 千軍里廢寺, 佛國寺, 四天王寺, 高仙寺, 聖住寺 등 겨우 10여개소 정도만 발굴조사되어 당시의 사찰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직도 많은 한계점이 있다.

4동의 건물지 가운데 제1, 제2, 제3 건물지는 구들시설과 같은 유구가 보이지 않고 불상을 안치하였던 흔적도 없다. 뿐만아니라 소조불이나 금동불과 같은 불상류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이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사역의 가장 한적한 곳이고 일자형 건물지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禪院과 같은 성격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그리고 제4 건물지는 구들 시설이 노출되었으므로 승방지로 추정된다.

제2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고 초석을 사각형으로 치석하였으며 가장 대형 건물지이므로 이 지구의 중심 건물지이다. 이와 같이 건물의 柱間이 正面의 경우 奇數間이 아니라 偶數間인 경우는 통일신라시대에 많지 않으며, 감은사 강당지(정면 8칸, 측면 4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건물지처럼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경우는 고려시대 유구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하남시(구 광주군) 岩寺址의 金堂址 정도가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희귀한 유구이다.

토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줄무늬병인데 扁瓶片과 함께 공반하고 있다. 이 줄무늬병은 목에서 구연부가 크게 꺾이고 있으며, 견부 아래에 줄무늬를 새긴 후 다시 빗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눌러 찍고 있으므로 9세기 전반 경에 소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이번에 출토된 기와들은 암·수막새, 귀면와, 모서리 기와, 착고, 이형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므로 이들이 사용되었던 건물은 상당한 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²⁰⁾ 그러므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볼 때 이번 에 조사된 유구의 중심연대는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전남지방에서는 화순 운주사, 진도 용장사, 영암 도갑사, 영암 천황사지, 장흥 보림사, 광양 옥룡사 등 여러 사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거의 대부분 고려시대나 조선 시대의 건물지들만 조사되었다. 이처럼 道內에서 진행되었던 학술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유

19) 崔孟植, 1991,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小考」, 『文化財』(文化財管理局) 24

20) 崔仁善, 1998, 「順天 金龜寺址 出土 기와와 土器」, 『文化史學』(韓國文化史學會) 9

구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둔사 통일신라시대 유구층 발견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옥룡사 부도전지이다. 부도를 보호하였던 건물지가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부도 아래의 지하에서 석곽 안에 석관이 안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들은 흔히 부도하면 '火葬'을 연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스님이 입적하면 당연히 화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중기까지 살았던 스님들의 장법을 그들의 碑文이나 墓誌 등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필자는 통일신라시대 碑文 자료 10개와 고려시대 碑文 자료 29개, 墓誌 2개, 石棺銘 1개 등 총 42개의 자료 가운데서 장법²¹⁾을 알 수 있는 것들이 25개의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적이 있다.²²⁾ 이 분석에 의하면 당시 승려의 葬法은 火葬과 埋葬 그리고 假埋葬 후 탑이나 부도를 완성하고 사리나 유골을 그 안에 안치하거나 작은 석관에 유골을 안치하는 二次葬(洗骨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이차장의 경우가 가장 많고 매장 경우도 몇 곳에서 보이므로 '佛家에서 화장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火葬의 경우는 斷俗寺의 信行(779년 입적), 興寧寺 澄曉(900년 입적), 法泉寺 智光(1067년), 弘護寺 昶雲(1104년 입적) 등 4명의 승려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火葬法이 古代 印度의 葬法 가운데 하나였고 우리 고유의 장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님들도 많이 채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埋葬의 史料는 雙谿寺 眞鑑(887년 입적), 廣照寺 眞澈(937년 입적), 菩提寺 大鏡(939년 입적), 淨土寺 法鏡(943년 입적), 內帝釋院 景廉(1102년 입적) 등 5곳에서 보인다. 窆(하관)이나 入龕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매장이 확실한데 석관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목관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假埋葬 한 경우의 史料는 聖住寺 朗慧(890년 입적)부터 福興寺 景德(1072년 입적)까지 13명의 승려에서 보인다. 임시로 장사를 지냈다는 의미는 시신을 가매장 한 후에 육탈되면 遺骨만 추려서 二次葬하였다는 뜻과 같다. 따라서 佛家에서 말한 二次葬이란 육탈된 유골이나 그 안에서 나온 사리를 부도나 석관 등에 봉안하는 장법을 의미한다.

21) 이 자료들은 李智冠, 1994~5.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高麗篇 1·2)』(伽山文庫)에서 추출한 것이며, 譯文 역시 그에 따른 것이다.

22) 崔仁善, 1997, 「앞글」(주10)

二次葬 즉 洗骨葬의 장법은 佛家에서만 이용하였던 장법이 아니라 선사 시대부터 내려왔던 우리 고유의 전통 장법 가운데 하나이다. 伸展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석곽의 길이가 짧은 고인들의 석곽이나 초기철기시대부터 4세기까지 사용되었던 소형 옹관묘 등이 이차장의 장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차장 가운데 부도에 유골을 안치하지 않고 석관에 유골을 안치하였던 특수한 예가 있다. 바로 본고에서 보았던 도선국사 경우가 그러하며 興法寺 眞空大師의 浮屠와 石棺, 영월의 興寧寺址의 일명부도와 石棺이 바로 그렇다. 이들 석관은 길이가 1m도 되지 않아 伸展葬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시 큰 스님들의 장법 정형이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禪師가 입적하면 寺衆들은 임시로 亡人의 神座(시체)를 假埋葬하고 나서 王에게 아뢰면 王은 易名의 儀典²³⁾을 거행하여 諡號와 塔銘을 하사한다. 그 후 어느 시기에 塔(혹은 浮屠)이 완성되면 色身(육탈된 뼈 혹은 舍利)을 받들어 塔에 안치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법 즉 二次葬이 바로 당시의 불교계 像法이었던 것이다.”

V. 전남동부지역 백제산성의 특징

전남동부지역의 백제 산성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기존의 백제 산성들과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산성의 입지조건은 낮은 산이라도 사방을 훤히 살펴 볼 수 있는 입지에 산성을 축성(검단산성, 마로산성, 남양리산성)한 경우와 배후에 더 높은 봉우리가 있으나 중간의 낮은 봉우리에 산성을 축성(성암산성, 난봉산성, 불암산성, 고락산성, 척산산성, 독치성)한 경우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이 산성들은 모두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테피식 산성이므로 자연히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계곡방향으로 성벽이 내려와 있다. 山頂의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테피식 산성이라 할지라도 한쪽은 산 정상부쪽에 성벽이 있고 그 반대편은 산의

23) 易名之典 : 大宗師가 입적하면 왕이 그 스님에게 생전에 부르던 호를 사용하지 않고 諡號를 追贈하여 바꾸어 드리는 것 혹은 德望이 높은 사람이 죽으면 王이 그를 위해 本名을 바꾸어 諡號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易名之典은 長湍 五龍寺 法鏡大師 普照慧光塔碑(944年 立碑)文, 海美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碑(978年 立碑)文, 原州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1025年 立碑)文, 竹山 七長寺 慧炤國師塔碑(1060年 立碑)文 등에 보인다.)

中腹까지 성벽이 내려와 있는 입지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백제산성의 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⁴⁾

그리고 검단단성, 고락산성과 척산산성, 성암산성, 난봉산성, 마로산성, 독치성 인근에 백제 후기에 속한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고분들은 6세기 중반 이후의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분이어서 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지역의 산성들은 해발 100~255m 사이의 낮은 산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성의 규모도 264~550m 정도로 소규모인 점이 특징이다. 반면에 이 지역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축성된 산성(여수 虎狼山城, 순천 五聖山城과 雲憂嶺城)은 해발 400m 이상의 비교적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의 산성이 이와같이 규모가 작은 이유를 함인호는 “백제는 그 지리적 위치로 하여 대륙의 침략세력과 맞서 싸우는 큰 전쟁을 겪지 않고 장성한 나라였다. 다만 주변 小國들을 정복하거나 그 침입을 막는 것이면 충분하였었다. 그러므로 백제의 성은 고구려에서처럼 큰 적과 맞서 장기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를 가진 성곽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²⁵⁾라고 하여 대외적인 투쟁사에서 그 연유를 찾고 있다.²⁶⁾

세째, 산성의 축성재료가 모두 石材이며, 산성의 형식이 태피식 가운데서도 山腹式을 이루고 있다. 백제 산성들은 토성도 많으나 섬진강 서안에 분포되어 있는 산성들은 토성들보다 석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백제가 국경지대의 방어시설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네째, 산성의 축성기법이 일반적으로 백제 석성들은 편축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지역의 산성들은 예외없이 夾築式(일정한 너비를 두고 체성의 내외를 둘로 쌓은 방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다. 그리고 체성의 내외벽 너비가 거의 500cm 정도로 일정하다. 체성은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거의 수직으로 쌓고 있으며, 위아래의 성돌 크기가 비슷하여 체성의 견고성이 문제가 되어 외벽의 하단에 점토나 석비레로 다짐하였다. 고구려나 신라에서처럼 별도의 기단보축시설을 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24) 심정보, 1999, 「高句麗 山城과 百濟 山城과의 比較 研究」, 『高句麗 山城과 防禦體系』(사단법인 고구려연구회) 462 및 李南奭, 1999, 「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現況과 特徵」, 『百濟文化』(公州大學校百濟文化研究所) 28, 222-223

25) 함인호, 1990, 「백제의 성곽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90년 제4호, 29

26) 심정보, 1999, 「앞글」(주24) 462

다섯째, 산성의 이용시기가 거의 백제 후기에 국한하고 있어 아주 짧다는 점이다. 검단산성과 고락산성의 발굴조사 결과 이 산성들에서 백제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들만 한정해서 출토될 뿐 다른 시기의 유물이 일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되자 곧 산성의 생명이 다하였다는 점을 웅변해 주고 있으며, 비록 섬진강 하류 서안지역이 백제의 최변방 지역이었지만 백제 중앙정부에서 볼 때 아주 중요시되었던 국경지대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광양의 마로산성에서만 예외적으로 통일신라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아마도 이 산성은 馬老縣의 治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산성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삼국시대 산성에서 문지의 위치는 계곡 주변을 택하여 계곡의 방향과 약간 비켜선 방향에 성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능선 주변을 택하되 역시 능선의 정상부에서 약간 비켜선 경사면에 성문을 만드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섬진강 서안지역의 산성들에서 문지가 확인된 산성은 검단산성, 고락산성, 불암산성, 독치성 등인데 역시 이러한 위치에 문지가 위치하고 있어 백제 중앙지역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산성의 水源確保 문제이다. 백제 산성들은 山頂의 일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테피식 산성들이므로 수원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검단산성과 고락산성의 발굴조사 결과 우물과 집수정 유구가 발견되었다. 우물과 집수정은 토광을 파고 그 내부에 우물벽을 돌이나 나무로 축조하였는데 토광과 우물벽 사이에 점질이 강한 점토를 1m 이상 짝 채워 넣어 한번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빠지지 않게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만들었다. 수원확보에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지표조사에서는 이러한 유구들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여덟째, 이 지역의 산성 유적에서는 암키와의 내면에 繩文이 있는 기와들이 아주 많이 출토되고 있다. 다른 유적에서는 이 평기와의 아주 희귀하게 출토된 반면에 이 지역의 산성들에서는 예외 없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지역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²⁷⁾

27) 崔仁善, 2000, 「蟾津江 西岸地域의 百濟山城」, 『섬진강 주변의 백제산성』(韓國上古史學會)

VI.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불교유적과 성곽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남 지역의 불교유적은 삼국시대의 것이 전무한 형편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사찰이 여러 곳에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유구가 없다. 가장 빠른 유적은 구례 화엄사 효대에 있는 석탑과 석등이 있는 유적으로 8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둔사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들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이 시기의 불교건물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잘 다듬은 초석을 사용하였다는 전면에 부석을 깔고 있는 점, 조화가 잘 어울리는 암·수막새의 사용, 여러 이형기와의 출토 등으로 볼 때 寺格도 어느 사찰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옥룡사의 부도전 조사는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었던 승려의 장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수확이었다. 승려들의 장법이 화장이었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고려시대까지 적용이 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후의 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사자사의 목탑지는 고려시대의 유구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남지역의 역사고고학 성과 가운데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아주 최근에 일어났다. 다름 아니라 전남지역에도 백제 석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유재란 때 朝·明의 연합 육군에 의하여 쌓여졌다고 전해 내려온 검단산성이 조사 결과 뜻밖에도 백제후기에 축성된 석성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도 백제시대의 새로운 유형의 유적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서 몇 년 사이에 15개 정도의 같은 유형 성곽이 더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이 성곽의 특징은 산성의 형식이 테피식으로 아주 소형에 속하고, 내외의 벽을 둘로 쌓은 협축식의 석성이며 성벽의 너비가 거의 500cm로 일정하고, 평기와와 내면에 마포흔 대신에 繩文(거친 쉼문양)이 시문된 기와들이 반드시 출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은 지표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성곽들과 달리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지표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유적의 성격을 어느 정도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백제석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석성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곽 유적은 종합 생활유적 뿐만 아니라 군사 유적이다. 따라서 성곽 자체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생활, 제사, 분묘 유적 등 성곽과 관련하여 아주 다양한 유구들과 유물들이 함께 출토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을 것이나, 산성의 발굴조사가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므로 관련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만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이 튼튼해야만 유적의 정비나 복원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후손들에게 보다 원형에 근접한 유적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검단산성의 정비와 복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관계당국에서는 발굴조사단의 의견보다는 다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협축의 성벽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토성처럼 흙으로 덮어서 성벽의 높이가 높은 곳은 30여 m에 달한 곳도 있으며, 문지 역시 흙으로 모두 덮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가운데만 통로를 열어두어 원형을 크게 일탈하고 있다. 그밖에 대형 우물과 수구 등도 원형과 아주 다르게 복원하여 문제가 많다.

Current Archaeological Researchs of Buddhistic Sites and Stone Fortress in the CheonNam Province

Choi, In-seon

This paper is focused on Buddhistic and ancient fortress excavated recently in Cheonnam Province.

The outcome of Buddhism is researching the building place of the period of the Unified Shilla Period in Geumdunsaji(金苞寺址). This is the first research for Buddhist sites of the period of Unified Shilla times. It was significant that we had wrong idea about monks' funeral at Okryongsa(玉龍寺). we found a skeleton in a stone cist which is believed to have been a secondary burial practice. It becomes clear that most of the monks had followed traditional burial services, secondary burial(washed-bone burial) until Koryo Period. Wooden-pagoda of Sagasa(師子寺) will be an important material now that sites of Koryo(高麗) Period were well known to us.

The investigation of fortress got started in 1984 from Goheung Balpojinseong(鉢浦鎮城) built in choseon(朝鮮) Period to Gwangju Mujingoseong(武珍古城) built in Unified Shilla Period, Naju Hwoijintoseong(會津土城), Wan-do Cheonghaejinseong(淸海鎮城), and so on. In addition, abruptly Suncheon Geumdansanseong(劍丹山城) ascertained as one built in the latter part of Baekjae and YeoSu Goraksanseong(鼓樂山城) were investigated recently so that they provide us great materials to study BaekJae fortress. The features of these fortress belong to small ones in that the form of mountain fortress is Temoe-styled, Hyeopchug-styled(夾築式) stone walls built both sides of inside and outside with stone, the width of castle wall is almost 500cm regularly, and the tiles carved rope pattern instead of calice vestigement inside of them were excavated without fail.